

2020년 방통위 예산안

2,599억 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9년 대비 약 17억 원(0.7%) 증액된 2,599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했다. (※ 일반회계는 2.7%↑(630억→647억, 17억↑), 기금은 전년 동(1,952억→1,952억))

이번 예산안은 ▲ 재난방송 역량 강화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다.

방통위의 최종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안 항목	주요 내용	예산 (단위 억 원)
재난방송 역량 강화	재난방송의 문제점 보완 위한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 지원 등	20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97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37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32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	29
중소·지역방송 등 지원 확대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40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의 우수 콘텐츠 제작비 지원	2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18.5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16.4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	51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3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등 강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20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00
	KBS 대외방송 지원 등	154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	296
	아리랑TV 운영 지원	354
	국악방송 운영 지원	67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통상 대응체계 강화	3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	9.6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5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	31



제56회 방송의 날 특별 세미나 한국 방송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비상경영 상황에 발맞추어 방송의 날 축하연을 취소하고 그 대신 '방송의 위기와 대응을 위한 특별 토론회'를 9월 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6회 방송의 날 특별 세미나에서는 재원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고 성장 동력이 상실된 지상파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전략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박정훈 한국방송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도 지상파는 그 어떤 미디어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투자에 나서고 있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강력한 규제와 최소한의 공정경쟁도 불가능한 차별 규제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발제에서 정수영 MBC 전문연구위원은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1년 종편 출범과 KBS, MBC 노조가 파업을 벌인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지난 10년 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훼손 등으로 공공성의 훼손에 그 원인이 깊다.”고 전했다 이러한 미디어 공공성 제건을 위해 지상파 방송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사회적 액세스를 개방하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한편, 공적 토론의 장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TV로부터 광고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TV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TV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라고 진단하며, “TV를 다수에게 도달 가능한 강력한 인상매체이자, 최고의 광고매체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제도 의존적인 폐쇄적 엘리트 구조를 타파하고 개방적인 제휴를 통해 기민하고 적응력 높은 기민한 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의 스낵 광고, 일부의 가상광고, VOD 광고로 제한되어 있는 TV광고를 여러 플랫폼과의 중장기적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해 플랫폼의 개별 특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젊은 층을 겨냥해 프로그램과 광고를 묶어 콘텐츠 전략을 세운 영국의 ‘채널 4’를 예로 들며, “채널 4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함께 상업성에도 성공하여 광고 기반의 무료 OTT 서비스인 ‘All 4’를 브랜드화하여 신뢰 유지와 시청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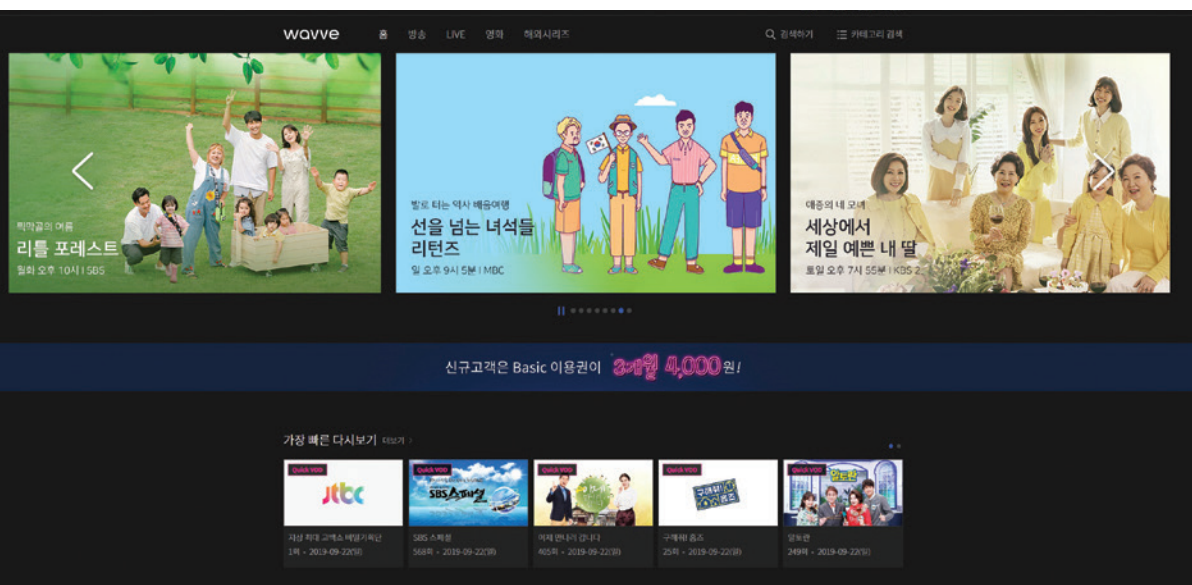
지상파 통합 OTT 'Wavve', 9월 18일 서비스 오픈



9월 16일 정동 아트센터에서 열린 Wavve 출범식.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이사,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박정훈 S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poq과 SKB의 '옥수수'가 만난 통합 OTT 서비스인 Wavve가 지난 9월 1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방송사 및 OTT 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이 계속되는 한편, Wavve의 출범은 지상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지상파의 염원이 담겨 있다. 기존 poq과 함께 TIVIVA 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쳤고, 그 사이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 경쟁력 하락과 광고 감소, 스트리밍 서비스의 추격 등으로 과감한 결정을 해야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에 선보인 Wavve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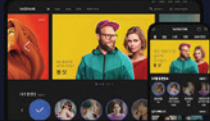
Wavve는 2023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500만 명 규모의 유료가입자를 유치해 명실공히 국내 No.1 OTT 사업자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3사와 SK 등 관계자는 9월 16일 정동 아트센터에서 Wavve 출범식을 열고, 기자회견과 함께 Wavve의 정식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인사도 참석을 하여 그 의미의 중요성을 더했다.



Wavve 홈페이지

new name wav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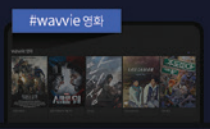
새로워진 Wavve를 소개합니다!



01 다크 모드
모바일 APP, PC 모두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었어.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Wavve를 즐겨보세요.



02 wavve 이용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avve 이용권이 Basic, Standard, Premium 3가지로 더욱 합리적이고 간결해졌어요.



03 wavvie 영화
Wavvie만을 위한 약 1,000여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용권을 구매하고 Wavvie가 되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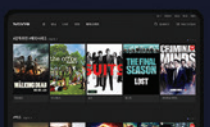
04 프로야구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는 물론, 여러 장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어요. 응원팀을 설정하고, 경기 알림도 받아보세요.



05 5GXR
VR기기 연결로 최대 360도 가상 현실 경험을! 취향 저격 아이돌 영상으로 바로 눈 앞에서 스타를 만나보세요.



06 5G 미디어
가장 작은 화면으로 가장 큰 화면을 경험해보세요. 드라마, 예능, 이스포츠, 다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07 해외시리즈
워킹데드, 슈츠, 그림, 매니페스트, 세이렌까지. 이번 인기 해외드라마도 Wavve에서 즐기세요.



08 e스포츠
LoL 경기 하이라이트는 물론, LOCKVOD 모든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 프로야구, e스포츠(게임), 5GX 서비스는 모바일 폰에서만 제공됩니다.
· 프로야구 실시간 시청 기능은 Android 7.0이상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는 Wavve 특징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문제점이 최근 발생했다. 바로 JTBC의 실시간 방송이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JTBC는 CJ ENM과 9월 17일 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상호 MOU를 체결하고 'Tving'을 기반으로 한 통합 OTT 플랫폼을 런칭하기로 합의했다. 지상파의 행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계산으로, 추후 kt나 LG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거기에 오는 11월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해 2021년까지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그 여파에 따른 Wavve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Wavve의 성장과 투자로 선순환 구조의 구축과 국내 미디어 산업이 반등하는 날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Wavve의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지난 4월 통합출범 계약 체결 이후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 고무적이다. 콘텐츠의 중요성을 실감했기에 Wavve는 무엇보다도 콘텐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기 드라마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고, 콘텐츠의 폭도 넓힌다. 9월 30일 방영되는 KBS 미니시리즈 '녹두전'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KBS 2TV와 Wavve에 동시에 방송과 서비스가 된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엔 500억, 2021년 600억, 2022년 800억, 2023년 1,000억 등 향후 회수 비용마저 콘텐츠에 재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시대를 반영한 서비스도 추가된다. Wavve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와 이를 알고리즘화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5G 시대에 걸맞게 VR/AR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인다.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로 기반을 쌓고, 해외에도 눈을 돌릴 예정인데, 한류 열풍이 강한 동남아시아 등 각국 OTT 서비스와도 협력하여 유통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관련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단계에 걸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진행될 해외 진출에서 1단계는 한국의 유료 가입자가 해외여행을 갈 때 한국 내 지불수단을 적용해 웨이브를 이용토록 하고, 2단계로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국가별 인기 콘텐츠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구글 플레이나 아이튠즈 등 지불 수단을 적용해 해외에 본격 진출하려는 방안이다.

이용권의 가격도 낮췄다. Wavve 이용권은 생방송과 기존 영화, 해외시리즈, VoD를 제공하며 Basic 요금제는 동시시청 1회선, HD 화질, 모바일+PC에서 이용 가능하며, 7,900원이다. Standard 요금제는 동시시청 2회선, FHD 화질로 10,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이용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 있는 1만 원 정도로 선정되었다. Premium 요금제는 동시시청 4회선, 최상위 화질로 서비스되며 13,900원이다. 여기서 음악과 Playy 영화까지 더해지는 요금제로 다양성을 더했다. 현재 신규고객에 한해 Basic 이용권을 3개월간 4,000원에 제공한다. 웨이브 월정액 상품 가입자는 비용 추가 없이 1,000여 편의 영화와 계속 추가되는 인기 해외시리즈도 즐길 수 있다. '매니페스트', '사이렌', '더퍼스트' 등 미드 3편은 웨이브가 국내에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이다. SK텔레콤 5G 기술을 활용한 프로야구 멀티뷰, VR 콘텐츠와 e스포츠 채널도 추가한다.